

다문화 사회를 위한 연승기획

#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1부) 너무나 몰랐던 우리의 이웃

10 함평군 (주)캔텍 외국인 노동자들



## “차별없는 능력별 임금제로 부자 꿈 이뤘어요”

(주)캔텍은 '코리안 드림'이 현실로 느껴지는 곳이라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말한다. 지난 8일 김영신 대표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했다.

/인한주기자 ahj@kwangju.co.kr

지난 8일 오후 5시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주) 캔텍(CANTECH·대표 김영신) 공장. 오후 일과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 여럿이 눈이 떠졌다. 이 공장은 110명의 직원 가운데 외국인이 29명이나 될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우리 사장님 마음 좋아요. 옛 추억을 잊지 못하고 한국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인 마만(35)씨는 김영신 대표와 함께 일했던 경험을 잊지 못하고 다시 공장을 찾은 경우다. 그는 캔텍이 설립되기 전인 1999년 광주의 한 공장에서 김 대표를 처음 만났다. 이후 5년간 함께 근무를 했지만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김 대표와 헤어지게 됐고, 한국에 재입국했을 때는 공장이 옮겨진 탓에 회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일주일 전 광주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김 대표의 공장 소식을 듣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함평으로 내려왔다.

그는 “명절 때면 저희를 집으로 초청해 떡국과 음식을 나눠주고 세뱃돈까지 챙겨주던 사장님을 잊지 못하고 이곳을 다시 찾았다”며 “그동안 남-

### 외국인 노동자 29명... 3년 근무해 각각 4,000여만원씩 모아 기숙사 등 최고 근로조건... 정 못잊어 다시 찾는 이들 많아

남방 시설도 없는 컨테이너에서 새우잠을 자야했지만 이전 침대까지 갖춰진 기숙사에서 편하게 잘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캔텍에는 마만씨처럼 제 발로 공장을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가 10여 명이나 된다. 외국인 노동자를 가족처럼 이끌어주는 직원들과 어떤 공장보다도 좋은 근로조건이 입소문을 타면서 생긴 일이다.

공장 내에는 용접·가공·프레스·설비지원·조립 등 각 팀별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김 대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외국인들의 숙소다. 7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사내 기숙사는 개인용 침대는 물론, 에어컨과 히터, 청소기까지 갖춰져 있다. 또 기숙사 내 직원식당에서

는 1식 4찬을 기본으로 세계 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입맛에 맞는 고향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을 수도 있다.

공장의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최창호(47) 이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피도록 많은 돈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며 “임금 또한 내·외국인을 구별을 하지 않고 능력별로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내국인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다”고 말했다.

숙식은 물론 작은 씬스미까지도 챙기는 회사 분위기 덕분에 고국에서는 벌써 ‘부자’ 대열에 합류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베트남 출신인 토아(33)씨.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터줏대감으로 통하는 그는 3년4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4천여 만

원을 모아 가족들에게 보냈고, 이 돈으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집 두 채를 마련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카르위탄(32)씨도 고향 자바와 수도 자카르타에 집을 한 채씩 구입했다.

쉽게 모은 돈은 아니지만 고향에서 만큼은 두 사람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캔텍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곳에서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날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주)캔텍은 중·소형 LPG 저장탱크와 생산설비를 제작하는 업체로 지난해 함평군으로 공장을 옮겼으며, LPG 저장탱크 생산분야에서는 한국시장의 20~3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기청으로부터 TS16949 품질인증시스템 획득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또 ISO 9001(산업기계) 획득과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일본 도요타 그룹과 합작으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세우고 올해부터 제품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한주기자 ahj@kwangju.co.kr

### ‘외국인 노동자 사랑’ 실천 김영신 대표



(주)캔텍 김영신(왼쪽) 대표가 사내 기숙사를 둘러보던 중 스리랑카 출신의 니스란(27)씨와 함께 웃고 있다.

### “외환위기 체불사태 때도 중국인 직원 월급은 꼭 줬죠”

“외국인 노동자는 ‘보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캔텍의 김영신(42) 대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는 한국 노동자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말은바 소임을 묵묵히 해주고 있는 기업의 핵심인력”이라며 “회사를 이끌어주고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사랑’에 대한 일화는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지난 1998년 한 공장에서 총무업무에 담당하고 있을 때 IMF(국제통화기금) 사태가 터졌다. 당시 전체직원은 150여 명으로, 이 중에는 중국인 노동자 40여 명도 포함돼 있었다. 회사는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안 좋아졌고, 김 대표는 일부 직원들에게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때 김 대표가 최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들이 바로 중국인 노동자들이다. 당연히 한국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김 대표는 “우리는 말이라도 통하지 않느냐”, “외국인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면 고향에 있는 가족 전체가 어려워진다”고 그들을 설득했다.

공장에 있는 장비를 팔아서 그들의 월급을 주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사체를 빌리기도 했다. 그의 고집은 기업에 몰입은 13년 동안 외국인들의 월급만큼은 한 차례도 미룬 적이 없을 정도로 특별했다.

“외국인 노동자 사랑”은 직접 회사를 경영하고 나서 더 각별해졌다.

회사가 어려웠을 때 4년 동안 통근 버스를 운행하기도 한 김 대표는 여름철만 돌아오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태우고 남도의 휴양지를 찾았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 노동자들처럼 일을 잘하면 능력별로 임금을 높여줬다.

지금도 캔텍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평균 160만~190만원의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

이런 그의 노력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땅, 한국’이라는 믿음을 심어줬고, 지금도 그 인연으로 회사를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종 있다.

김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려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한국 노동자와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보지 않고, 진정한 동료로 생각할 때 회사도 발전하고 매출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한주기자 ahj@kwangju.co.kr

**장수온돌침대**

최고품질의 장수온돌침대  
신체건강을 위한 최고의 장수온돌침대

시범이 1,490,000  
빅토리 1,380,000  
빅서리 850,000

하이파워생용가구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62-252-3001~2

**모디쉬갤러리**

시론 4인식탁 ₩ 690,000 (최소현금)

2008년 2월 10일 현재  
2008년 2월 10일 현재  
2008년 2월 10일 현재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62-252-3001~2